

國文學研究의 回顧와 反省

— 韓國 漢文學研究의 側面에서 —

崔 信 浩

(聖心女大 教授)

I

學問의 方法論을 探鑽에다 비교해 볼 수 있다. 鎭山家는 수지와 타산이 맞을 만한 鎭脈을 發見했을 때는 많은 投資와 人員을 동원하여 알맹이를 케내는 일을 멈추지 않지만, 廢鎭이 예상되면 제빨리 새로운 鎭脈을 찾아 作業을 서두르게 된다. 그래야만이 중단없는 作業으로 財産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다. 學問의 경우는 이러한 轉移行爲를 方法論의 轉換이라 일컫게 된다.

周知한 바와 같이 우리 韓國文學은 二重構造를 가지고 發達해 왔다. 庶民層의 純朴한 感情流露의 結晶인 庶民文學과 선비層의 漢文學이 그것이다. 庶民文學은 特定한 作家나 文閥을 形成하지도 못한 채, 口碑나 說話로 流傳해 오다가 그 중에 秀逸한 作品은 民謠化되었거나 漢譯되어 겨우 傳承되어 왔으니 先文學的 位置밖에는 차지 못했고, 또 國字의 制定 이후에도 國字의 使用은 여전히 貶視되어 若干의 時調와 歌辭를 제외한다면 이렇다 할 創作家的 輩出을 가져 보지 못한 채 國文學은 庶民의 손에서 가냘프게 命脈이 유지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선비층의 漢文學은 도도하게 文閥을 이루면서 漢文學에 參與하여 적어도 漢詩를 짓고 規格있는 散文을 쓰는 것이 必須의 條件이 되어 왔다. 선비들은 漢文을 自國語와 對立시켜서 乖離같은 것을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中國文學을 模擬했던 그러한 文學行爲는 아니었다. 비록 文字와 形式은 저쪽에서 빌려오

기는 했지만 情緒나 敘事의 形態, 그리고 自然이나 社會的 背景은 自國의인 特性이 浮刻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正音文學이나 漢文學은 다 같이 韓國이라는 共同地盤을 가지고 創作되어 왔으므로 다 같이 귀중한 遺産이란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렇게 民族을 단위로 한 文學이라던 上下層의 文學을 망라하여 研究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며, 이러한 論理로 따진다면 正音文學이나 漢文學을 均衡있게 研究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의 研究歷史를 回顧해 보면 跛行性을 면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漢文學의 內容과 값을 따질 겨를도 없이 그것이 正音으로 創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研究를 도외시해 버렸거나 庶子 취급을 해 왔던 것이 學界의 實情이란 뜻이다. 그 결과 文閥을 형성해 오면서 創作되어 온 山積한 漢文學遺産들은 잠재워 둔 채 庶民들의 가냘픈 正音遺産 研究에만 세월을 바쳐 온 결과가 되어 버렸다. 지금까지도 各大學의 國文科 運營實態를 보면 漢文學에 관심을 둔 學生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正音文學研究만을 위한 教育課程으로 짜였을 뿐만 아니라 漢文學을 고려한다 해도 講義를 담당할 만한 教授가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筆者는 廢鎭이란 말을 썼지만 이제 正音遺産은 바닥이 드러났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周知한 바와 같이 正音遺産은 傳授된 것이 量的으로 적은 데다가 30년 동안이나 많은 研究人口가 매달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發掘의 여지가 적게 되었다는 말이다. 여기서 新進들은

方法論上으로 고민을 안게 되고, 그 고민 끝에 찾아진 廣場이 漢文學世界였다.

政策當局은 國學研究의 實情에 어두운 것 같고, 既成學者들은 손익은 종래의 作業方式을 좀처럼 고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귀중한 漢文遺産들이 골동품처럼 死藏되지 않을까가 걱정이 된다. 더구나 正統漢文學者의 수는 열 손가락을 꼽을 정도인데 이들의 平均年齡은 70세에 이르고 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우선 漢籍들의 解讀부터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優秀두뇌가 모인 大學에 漢文教育科가 아닌 漢文學科가 新設되어야 하며, 그것이 안된다면 國文科率下에 漢文學專攻단이라도 하나 더 덧붙여야 함은 물론이요, 教育課程도 漢文學研究가 이룩될 수 있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II

그렇다면 漢文學遺産은 얼마나 되고 무엇을 어떻게 研究해야 할 것인가를 言及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먼저 漢文學遺産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부터 言及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全國에 散在되어 있는 것을 한번도 調査研究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舊韓末에서 지금까지의 目錄刊行的 실적을 보면 모리스 꾸랑이 펴낸 「한국서지목록」이 있고, 마에다 교사구(前間恭作)가 펴낸 「古鮮冊譜」가 있으며, 國會圖書館에서 펴낸 「古書綜合目錄」이 있고, 國立圖書館, 서울大, 延世大, 高麗大, 成均館大學 등이 소장한 古書目錄을 펴낸 것이 있는데, 이들 目錄에 수록된 典籍은 대략 18,000種에 가깝고, 책의 수로는 77,000種에 가깝다. 이것이 전체 典籍 가운데에서 얼마만한 비율을 차지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숫자만도 적은 분량은 아니다. 이 안에 收錄된 作品數를 따진다면 天文學의 숫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遺産들은 地政의 조건 때문에 하루도 寧日이 없이 잇따른 兵禍를 일으면서도 우리 先人들은 용케도 創作을 해왔고 또 그것을 保存해 왔

기 때문에 그만큼 資料만이라도 殘存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로 이것은 精神文化의 寶庫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아직 이러한 遺産들이 倉庫 속에 방치된 채 資料의 情報나 價値 糾明은 말할 것도 없고 資料로 활용될 만큼 정리 정돈도 안되어 있는 딱한 실정에 놓여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體系的인 分類와 典籍의 가치가 糾明되어야 할 것이요, 研究者가 關心을 지닌 분야별로 자료를 발췌·수록해서 資料集을 집성하는 作業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研究方法에 대하여 약간 言及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먼저 正統漢文學遺産들이 오늘날 우리가 通念的으로 認識하고 있는 文學概念과는 다른 內容도 많이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前提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을 오늘날에 되살려서 원형대로 再生産한다거나 옛날 사람들의 文學認識을 그대로 傳受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歷代 선비들의 文學精神이나 思想이 어떻게 굴곡 발전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國文學에 기여되고 있는가를 따지면 되고, 또 그 方法을 통해서 어떻게 國文學을 深化, 擴大할 수 있는가를 살피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文學一般의 通性으로 보아서 그것이 어떤 長短點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해서 古典文學은 물론이요, 現代文學이라 할지라도 그 長點을 援用해서 새로운 方法論으로 재정립하는 길이 研究態度라 생각한다. 漢文學이 비록 表現道具와 樣式은 中國의 것을 빌렸다 해도 韓國 사람이라는 意識과 思想, 그리고 韓國의 風土 속에서 生産된 것인 만큼 그 속에 潛藏하고 있는 情緒나 美學的인 核은 公通分母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III

그런 뜻에서 本稿는 여러 가지 側面에서 漢文學의 研究方法論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國文學과의 상관된 脈絡 속에서 몇가지 方向을 提示하려고 한다.

첫째, 漢文學에 있어서의 詩賦와 正音詩歌와의 관계다. 그동안 우리 學界에서는 時調와 歌辭에 대한 研究는 많았다. 그러나 漢文學과의 관련성에서는 별반 研究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예컨대

松江, 孤山, 蘆溪, 俛仰亭, 堯岩, 樂泉, 退溪, 栗谷은 물론이요, 그 외의 많은 선비들도 몇 수석의 時調나 歌辭를 남겼다. 그래서 그들을 時調作家 또는 歌辭作家라 했고, 또 그런 側面에서 研究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분들에 대한 理解는 時調나 歌辭단 가지고는 研究成果를 크게 올릴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사실이다. 그들은 時調나 歌辭의 作家이기 이전에 漢文學作家였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들이 남겼던 몇 수의 正音詩歌는 그들의 餘興의 所産일 뿐이지 本格的인 分野는 아니었다. 그들의 文學的 眞髓에 접해보려 하고 그들의 時調나 歌辭의 源泉을 캐보려고 한다면 그들의 漢詩賦부터 먼저 據得해야 하고 그들의 哲學과 思想에 먼저 접해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남겨 놓은 漢文學文集을 공부해야 한다는 結論에 이른다. 「松江集」 한번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松江의 時調나 歌辭를 이야기한다거나, 「退溪集」 한 번 읽어 본 적이 없이 陶山十二曲이 어떻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또 그들이 남긴 漢詩와 時調, 辭와 歌辭와의 관계는 비록 表現道具가 다르고 韻律이 다르다 할지라도, 意境은 같은 것이었다. 時調集들에 보인 序文만 보아도 漢詩理論을 가지고 時調를 說明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意境을 가지고도 형편과 쓰임에 따라 時調나 歌辭를 짓기도 하고 漢詩나 賦를 짓기도 했던 것이다. 형편과 쓰임이라고 한 말은 吟咏한 것으로足할 경우에는 漢詩나 辭가 제격이었지만 宴會같은 자리에서 歌唱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時調나 歌辭를 지었다는 말이다. 漢詩는 吟咏할 수는 있어도 歌唱하기에는 부적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正音詩歌가 따로 있고, 漢文詩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時調나 歌辭를 根源的으로 研究한다거나 그 領域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歷代 漢詩는 물론이요, 그들의 文集을 먼저 철저히 섭렵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종래처럼 漢文詩歌라고 해서 그것은 도외시해 버린 채 正音詩歌에만 매달리던 잘못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이다.

다음은 古小說과 史傳類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小說과 史傳類는 별개의 意識 속에서 成長·發達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

은 敘事文學의 形態라는 관점에서 보면 兩者間의 類似性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列傳, 家傳, 外傳, 別傳, 神仙傳, 高僧傳, 烈女傳 같은 史傳文學을 좀 더 誇張하고 敷衍한다면 小說이 되는 一面이 없지 않다. 「三國志」를 誇張하고 敷衍해서 「演義三國志」라는 小說을 만들어 놓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古代小說들의 題目부터가 末尾에 「○○傳」, 「○○志」, 「○○記」라 되었다. 그런데 「傳」이니 「記」니 「志」니 하는 것부터가 漢文學樣式에 보이는 史傳의 記述樣式이다. 天子나 王에 대한 記述을 「紀」라 했고, 刑罰이나 經濟 또는 重要한 사건에 관한 기술을 「傳」이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古小說이 대개 鑑戒主義的 教訓性에 바탕을 두는 것이 많은데, 史傳의 記述目的이 또한 그러한 것이었다. 또 表面面에 있어서도 사건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 대화가 끼어드는 것은 물론이지만 興味와 劇的인 꾸밈새까지도 兩者가 같다. 그러고 보면 小說과 史傳이 꼭 같다는 것은 아니고, 또 그것의 進化發達 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敘事文學의 일환으로 이들을 묶어서 정리해 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各文集에 散在되어 있는 傳類는 물론이요, 稗說類까지 한데 정리해서 研究해 본다면 史傳이나 稗說類의 성격구명은 물론이요, 時代마다 다르게 부각되는 變移樣相, 나아가서는 古小說의 原型이나 變化 과정을 고찰하는데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은 文學論이나 批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分野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많이 관심을 지닌 바가 되었다. 그러나 이른바 詩話集을 中心한 考察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나름대로의 값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詩話集은 修辭論에 편중되었거나 詩作의 落穂談같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文藝美學이나 作家의 思想에 대한 言及은 별로 없다. 오히려 文集 속에 言及된 序跋類나 私牘類, 그리고 論辯類 속에 많은 文學論이 散在해 있다. 그러므로 일련의 이러한 資料들을 수집해서 한 실에 켤 수만 있다면 漢文學 自體理論뿐만 아니라 正音文學이나 現代文學이 가지고 있는 普遍論과도 통할 수 있을 것이고, 通時的 脈絡을 가

지고 古典文學世界와 現代文學 사이에 단절된 傳統的 脈絡을 이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은 日記, 紀行, 身邊雜記 등이 망라된 漫筆類를 생각해 볼 수 있다. 漫錄, 雜記, 雜錄, 漫記, 雜存, 委譚, 筆記, 紀聞, 別記, 偶談, 夜話, 暇筆, 記略, 餘話, 秘錄, 譚叢, 撫言, 類說, 瑣談, 叢志, 說林, 叢話, 耿談, 清話라 불리운 것들이 그것이다. 學界에서는 이것들을 隨筆 속에 총괄해 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들은 現代隨筆과는 매우 다른 性格을 가진 글들이기 때문에 부르기 쉬운대로 隨筆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모조리 정리해서 새로운 文藝的 價値糾明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分野 역시 자료 정리마저도 안되어 있는 실정이니 方法論에 따라서는 많은 作業 성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다음은 文學思想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重且大한 과제이며 또 至難한 작업과정을 안고 있다. 歷史認識이 뒤따라야 하고 哲學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이 分野도 미개척 分野로 남아 있다. 이 分野는 佛教, 儒教, 道教, 陽明學 등의 공부는 물론이요, 歷史 공부 가 철저해야 가능한 分野다. 그러나 우리 典籍 가운데에는 이러한 研究에 도움이 되는 資料들이 山積해 있다는 것은 多幸한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 學界에서는 이러한 점에 너무 소홀해 왔다. 例컨대, 「洪吉童傳」이나 「九雲夢」에 대해서는 많은 研究가 있었지만 許筠이나 金萬重의 文集에 담겨 있는 思想性에 대해서는 별반 研究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文集에 담겨 있는 思想體系를 도의시키고 「九雲夢」만을 움켜쥐고 백번을 굴러도 金萬重의 文學思想은 그 一角밖에는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西浦漫筆」이나 「西浦集」, 그리고 周邊文集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다. 그 속에는 儒·佛·道의 思想이 담겨 있고 朱子主義의 虛像이 비판되면서 17세기 思想가 釀成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다음은 作家論과 作品論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가장 권하고 싶은 分野이고 또 先行되어야 할 과제다. 作家와 作品이 철저하게 연구되고 綜合化되었을 때 여타의 길도 트이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既成者學들은 몇 분이서 全史를 다 감당해야 되는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거죽만 넘겨졌고 갈 수 밖에 없었고 그것도 正音遺産에 관련된 부분만 손을 대 왔지만, 이제는 研究人口도 늘었으니 어느 作家를 專擔해서 深層分析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다시 通時的으로 綜合해야 할 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中國文學과의 比較文學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흔히 우리 漢文學世界는 中國의 周邊文學처럼 誤認하는 일년도 없지 않았다. 그것은 內容檢討가 없었던 데서 빚어진 結果일 뿐이다. 그러므로 中國文學도 잘 알고 우리 文學도 잘 알 수 있을 때 授受關係도 명확해지고 우리 漢文學이 中國文學과 어떤 점이 다르다는 점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IV

이상으로 들었던 것 외에도 여러 가지 方法論이 있을 수 있다. 漢文學樣式은 무려 110餘種이나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한 가지 樣式에 매달린다 해도 백여명의 研究人口가 必要하다는 計算이 나온다. 本稿에서는 다만 지금까지 學界에서 이루어 놓은 研究業績과 作業方式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 터전에도 어떻게 하면 좀더 作業廣場을 넓힐 수 있을까 하는 側面에서만 考察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克服해야 할 基礎作業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研究現實임을 알 수 있었다. 國文學研究는 이제부터 시작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學問이란 意欲만 가지고 되어진 것은 아니다. 진진한 전진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序頭에서도 말했지만 그러한 研究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政策當局은 學界의 現實을 좀더 科學的으로 理解하고 研究에 알맞는 制度的 裝置와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各大學 現役들은 既存 研究方法를 당장 전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後進들의 앞길을 위하여 研究 분위기만은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廢鐵이 눈 앞에 닥쳤는데도 새로운 鐵脈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 學界의 不幸이 아닐 수 없다.

*